

고물가에 11월 '체감월급' 1만6000원 ↓ ...8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부, '작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11월 기준 임금 15만원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감소 12월 사업체 종사자 42만명 ↑ ...22개월 연속 증가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358만5000

원으로 전년 동월(343만원)보다 15만5000원(4.5%) 증가했다.
상용직이 378만5000원으로 17만3000원(4.8%), 임시·일용직은 176만4000원으로 5만원(2.9%) 각각 늘었다.
매월 근로자 수와 임·이직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중

임금·근로시간 부분은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29만6000원으로 13만원(4.1%) 늘었다. 300인 이상은 503만1000원으로 26만8000원(5.6%)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은 328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6000원(0.5%) 감소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5만원 올랐지만 고물가 지속에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6%에서 시작해 가파르게 올라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여전히 8~12월 5개월 연속 5%대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은 지난해 4~11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별로는 4월 -2.0%, 5월 -0.3%, 6월 -1.1%, 7월 -2.2%, 8월 -0.6%, 9월 -2.3%, 10월 -0.5%, 11월 -0.5%다.
실질임금 감소세에 지난해 1~11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과 같았다. 이는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381만8000원으로 18만5000원(5.1%) 오른 것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지난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855만명)보다 42만7000명(2.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

세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2월(51만2000명) 50만명대 증가 이후 3월(47만1000명)부터 10개월째 4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이 6만1000명 증가하며 2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9만3000명 늘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4만7000명(1.6%), 임시·일용직이 21만1000명(11.7%) 증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3만1000명(2.8%) 감소했다.
최이슬기자

깨끗한나라 '주방 클린티슈' 출시

친환경성 높은 주방 티슈...찌든 때 제거 탁월



깨끗한나라가 제주 레몬껍질을 재활용하고 식품첨가물인 베이킹소다를 첨가한 '깨끗한나라 주방용 클린티슈'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깨끗한나라 주방용 클린티슈는 제주농가에서 수거한 레몬껍질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Upcycling·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활용해 새로운 물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제품이다.

또 제품 캡에는 50%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친환경성을 더욱 높였다.
깨끗한나라 주방용 클린티슈는 도톰한 에어 엠보싱 원단을 사용해 표면의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레몬껍질 원료와 베이킹소다 및 곡물발효 에탄올이 함유돼 있어 기름때와 찌든 때, 물 얼룩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폐렴간균, 녹농균 등 유해세균 5종에 대한 99.9% 살균효과를 준다.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과 알레르기 반응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주방의 악취와 비린내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큰 사이즈와 도톰한 두께로 티슈 한 장으로도 주방의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다. 또 청소포 밀대와 환화팩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다.

유이나 기자

'코로나 특수 끝' 가구업계, 할로찾기 분주... "우군 찾아라"

코로나 이후 가구 수요 줄어...실적 하락세



가구업계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의 터널을 뚫기 위해 생존 전략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 영역을 넘어 타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가구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특수'가 끝나가면서 실적이 덩달아 침체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이사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1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3분기 매출 477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수치다. 현대리바트 역시 같은 기간 매출 364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증권가는 올해도 가구업계의 실적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꾸준

히 타 업종과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우군'을 찾아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타 업종과 성공적으로 협업할 경우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는 물론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가구업계가 손 뻗은 시장은 가전, 헬스케어, 아동패션, 호텔 등 다양하다.
시몬스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웨딩 페스티벌'을 전개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비스포크 웨딩클럽 쿠폰을 지참한 후 삼성전자와 시몬스에서 각 300만원 이상 구매시 매트리스 커버 1종을 증정하는 행사다. 삼성전자 웨딩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3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시몬스는 지난 12월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젠과 협업하며 수면가구 시장에도 발을 뻗었다. 시몬스는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의 최대 할인율에 추가적으로

3%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커버도 추가로 증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가정 내 헬스케어 소비가 늘어나자 관련 시장에서의 인지도 높이기에도 나선 모양새다.
이에 맞서 업계 1위 에이스침대에 타 업종과의 협업에 나섰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11월 이마트24와 손잡고 '클립 에이스'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해당 상품 중 일부는 MZ세대에 각광받는 남부현 아티스트가 디자인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침구 브랜드 '웰크론'과 공동 판매를 진행했다. 이들은 웰크론 공식 온라인몰과 '에이스 웨딩멤버스'의 멤버십 제휴를 진행했다. 웨딩멤버스 회원은 대상으로 기능성 침구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하는 신혼 맞춤 프로모션이다.
공동 팝업스토어 오픈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곳도 있다. 한샘은 지난 25일 아동 전문 패션브랜드 '히로'와 공동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 적합한 가구에 히로의 특징적이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접목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 팝업스토어의 특징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한샘은 호텔 업계에도 손을 뻗었다. 한샘은 지난 5일 그랜드호텔앤리조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휴를 통해 한샘은 일부 글래드호텔 객실에 의자와 식탁 등을 설치했다. 한샘 관계자에 따르면 한샘은 추후 호텔과의 협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매점 글래드 제주 분관 객실 내 가구를 맞춤 제작해 공급하는가 하면, 롯데호텔·K'에스테이트 등의 호텔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승호 기자

벤츠, 럭셔리 전기 SUV '더 뉴 EQS' 출시

20cm 이상 높아진 전고, 최대 7인 탑승 가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더 뉴 EQS SUV'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EQS SUV는 벤츠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를 기반으로 개발한 첫 럭셔리 SUV다. 지난해 4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더 뉴 EQS SUV는 럭셔리 전기 세단인 더 뉴 EQS와 휠베이스(3210mm) 길이가 같지만 전고는 20cm 더 높다. C-필러를 뒤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넉넉한 실내공간을 구현했으며 최대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실내는 넉넉한 공간을 갖췄다.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2열 시트는 최대 130mm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며 2개 좌석이 탑재된 3열 시트는 선택사양으로 제공한다. 트렁크 공간은 최대 2100ℓ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3열 시트를 접어도 5명 탑승과 4개의 골프백을 적재할 수 있다.



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적용됐고,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상황을 감지해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리-세이프가 포함돼 탑승객을 보호한다. 운전대 뒤쪽으로는 회생제동이 가능한 변속 패달을 뒀다.
주요 모델로는 '더 뉴 EQS 450 4MATIC SUV', '더 뉴 EQS 580 4MATIC SUV'가 출시되며 국내 출시를 기념해 '더 뉴 EQS 450 4MATIC SUV 런칭 에디션', '더 뉴 EQS 580 4MATIC SUV 런칭 에디션'도 선보인다.
20주년 기념 온라인 스페셜 모델인 '더 뉴 EQS 450 4MATIC SUV 온라인 스페셜'도 출시할 예정이다. 차량 가격은 1억5270만원~1억8540만원이다. 런칭 에디션의 가격은 1억5990만원~1억833만원, 온라인 스페셜은 1억6460만원이다.
요하네스 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신형 EQS SUV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선보이는 최초의 대형 전기 SUV로, 메르세데스-벤츠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전기차 중 가장 크고 고급스러우면서 어떤 상황에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라며 "벤츠 고객들이 찾던 럭셔리 미래의 미학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미분양 '위험수위' 6만 가구 넘었다...두 달 연속 1만 넘게 증가

12월 말 5만8027가구...한 달새 1만80가구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최근 두 달 연속 1만가구대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미분양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만8027가구에 비해 17.4%(1만807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위험수위라고 정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4월 2만7180가구, 5월 2만7375가구, 6월 2만7910가구, 7월 3만1284가구, 8월 3만2722가구, 9월 4만1604가구, 10월 4만7217가구, 11월 5만8027가구, 12월 6만8107가구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 한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처럼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하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과거 '청약=로또'라는 인식이 깨진 것도 원인이다.
미분양 증가세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지난달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7072가구로 전월 대비 19.8%(9418가구) 급증했다. 광주(80.7%·130가구), 대전(74.8%·1386가구), 충남(68.6%·3463가구) 등의 미분양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규모가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에도 한달 사이 1745가구(14.9%) 늘면서 1만3445가구로 불어났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662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865가구에서 953가구로 10.2%(88가구) 증가했고, 경기는 7037가구에서 7588가구로

7.8%(551가구) 늘어났다. 인천도 2471가구에서 2494가구로 0.9%(23가구)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올해 말에 미분양이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미분양 증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미분양 물량보다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압력 요인 해소를 위해 실수요, 금매물 중심으로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